

지금-여기가 나의 또 다른 세상이야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1주년을 맞아 신문제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기자지방생 독자 남보이(동국대 신문방송학과 4년) 학생을 '1일 독자 기자'로 선발했다. 남보이 독자기자는 1998년 모 이동통신사의 CF에 스님으로선 처음으로 출연해 신선한 화제를 일으켰던 청안 스님을 만나고 싶어했다. <편집자주>

7년만에 빈 CF속 맑고 청아한 이미지의 청안 스님은 계속되는 불사로 겹겹이 쌓여온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행자적인 기풍은 여전했다. 스님 처소인 동향각 앞에서 비가오는 곳은 날씨인데도 남보이 명예기자에게 법문을 해주고 있는 청안 스님.

'또 다른 세상을 만나면 잠시 깨우쳐도 좋습니다.' 영화배우 한석규와 한 스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 광고는 7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명(名) 광고다. 속세의 번잡함과 답답함을 피해 산을 찾은 한 도사인에게 잔잔한 휴식과 평온함을 주었던 하얀 피부, 따뜻한 인상의 그 스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실까? 광고 이후,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모습을 찾기 힘들었던 청안 스님을 7년만에 경북 예천 용문사에서 만났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큰 외상을 입은 청안 스님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오느라 늦었다며 기다리게 한 것에 매우 미안해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스님은 붓대를 감아 불편한 손으로 직접 스님의 처소인 '동향각'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었다. 차를 폐차 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상대편 운전자가 가난한 월급장이였기에 스님은 병원에서 다른 부대비용을 직접 감당했다고 했다.

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짚어 지니고 묻자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남에게 약하게 하면 안돼요. 부처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라고. "내가 보험처리를 하면 잘 잘 못이 밝혀질테고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하며 오히려 가해자인 운전자를 걱정하고 계셨다.

그래서야 이번이 정말 CF 속 그 청정하고 따스한 모습의 바로 그 스님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느덧 7년이 지난 시간이 흘러 CF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넉넉한 마음 씀씀이와 증생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보살심에서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



시도때도 없는 인터뷰 요청에 수행할 곳 찾아 여기 왔지
여기저기 방치된 문화재 보고
놀라 보수하기 시작했어
보물 지정 신청, 윤장대 홍보 등
열심히 노력해야지
사람들에 믿음을 줘야 하나

즐 것 같은 수행자다운 기풍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큰 히트를 친 스님의 CF는 다른 종교단체의 반발로 4개월 만에 방송이 중단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스님의 따스하고 청정한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출가를 한 스님으로서 상업 광고 출연이 다른 스님들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에 여러 번 거절했던 스님이 CF를 찍기로 결심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광고기획사의 기획 의도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스님은 광고 편집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거는 등 어렵게 승낙을 했는데, CF촬영 첫 날 너무 힘들어 그만 둘 생각을 했다고 웃음지으며 회고한다. 함께 촬영한 한석규씨가 오히려 스님을 격려하는가 하면, NG가 날때도 차마 스님을 혼내지 못하는 감독에게 대신 꾸중을 들어가며 열심히 촬영했기에 4일간의 힘든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찍은 광고는 당시로서는 스님이 출연한다고 화제가 돼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길거리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거기다 기자들의 시도때도 없는 인터뷰 요청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방송의 위력이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속세의 인연들에 괴로워 살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조용히 수행해야 할 곳을 찾아 다녔고 그때 인연이 돼 온 곳이 바로 용문사입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스님은 그냥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여러 문화재급 보물들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이후, 스님은 성보문화재들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는 유품 전시관 건립과 여러 문화재들의 보물 지정 신청, 템플스테이 축소 건립 불사, 윤장대를 일리는 법회개회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스님 혼자서 말이다.

이렇게 밝았으로 동봉서주해사일까. CF에서 보여줬던 하얀 피부는 어느새 검게 변해 있었다. 스님은 그동안 씩씩한 불사에 매달리느라 이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삶을 뒤돌아 정리할 때 쓸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는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종교란 그 뿌리를 지키면서도 언제나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춰나가면서 시대에 적응해야 돼요. 현실에 동화해서 사람들과 같이 숨 쉬고 살며 믿음을 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스님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여유는 길게 남았다.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수행자의 향연 때문이 아닐까. 글=남보이 독자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취재우기

부족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1시간도 안돼 출력되는 자체 편집 시스템 활용



취재에 앞서 편집회의에서 현대불교 기자들과 취재방향에 대해 회의를 하는 남보이 독자기자.

! 회의

처음 신문사로 가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실무지침을 듣고서야 내가 정말 1일 독자기자로써 스님을 취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많은 독자들을 대표해 유명 CF 스타 스님을 만나 기사를 써야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기대되고 흥분되었다.

! 취재

취재 가기 전 넘쳐난 기대와 흥분은 용문사로 향하는 길 위의 안개 속에서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나의 긴장감을 풀어준 것은 바로 안개가 걷힌 뒤 나타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었다.

내가 독자 1일 기자임을 안 청안 스님께 먼저 내게 질문도 해 주시고 농담도 해주시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취재를 끝내고 돌아설 때 언제나 다시 놀러오라던 스님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 기사작성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그날의 소중한 경험과 나의 느낌, 스님의 좋은 말씀을 글로 적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써도 도저히 제대로 된 글이 써지지 않았다. 이번 1일 독자 기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나의 부족한 글 실력으로 인한 것이었다. 비록 많이 영성하고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스님의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편집

학교에서 신문제작 실습 때 인쇄소에서 편집하는 과정을 잠깐 본적이 있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컴퓨터로 자체 편집을 하고 있었다. 내가 쓴 기사가 1시간도 안돼 출력되니 꽤나 놀랐고, 기사를 보고 합리적이고 간편한 제작 시스템에 놀랐다.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완전 석권한 - 리빙에어

스님, 불자님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악취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산업공해 연구원(시험성적표) ◆고려대학교연구소 측정확인서
◆캐나다 환경청 인증서 ◆미국환경청 인증서

❖ 리빙에어의 다양한 효능❖

-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등의 질병예방
- ▶애완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 ▶유해냄새 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평에서 70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번영구적으로 사용

Fresh Air

환과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기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정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SynAirG5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아균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에코테크 과정을 촉진합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www.o2air.net